

Ⅲ. 北韓 診斷

1. 黃長燁의 北韓 戰爭 準備說

- (황장엽의 증언 내용) 황장엽은 기자 회견에서 북한의 전쟁 준비 상황과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였음
- (국방부의 입장) 이미 알고 미리 대비해 왔던 것으로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고, 대북 경각심을 재차 일깨워 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
- (주변국의 입장) 미국은 군사 정보로서는 그다지 중요성이 없으며, 현재로서는 북한의 남침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징후가 없다고 평가
- (평가) 현재로서는 전쟁 가능성을 너무 우려할 바는 아님. 현재 미국, 중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
- (대응 방향) 그러나 전쟁은 단 1%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,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인 전쟁 방지 노력이 요구됨
 - 군사적 抑止(deterrence) :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 등 안보 태세 강화
 - 경제적 억지 : 식량 등 일정 수준의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증대
 - 외교적 억지 : 남북 대화 및 개방 유도, 교차 승인 유도 등 긴장 완화
 -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: 상호 군비 축소 및 신뢰 구축, 평화 협정 체결 등

황장엽은 북한의
도발 가능성을
강력한 어조로
경고함

○ (황장엽의 증언 요지) 7월 10일 황장엽은 기자 회견을 통해 북한 내부의 전쟁 준비 상황과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강력한 어조로 경고

- 그는 김정일이 경제난 심화와 같은 현 상황에서 전쟁 밖에 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, 주민들에게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고 증언

이미 알고
미리 대비하고
있던 내용으로
크게 새로운
내용은 없음

○ (국방부의 입장) 이미 알고 대비해 오던 것으로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고, 대북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

- 그렇지만 '전쟁 도발 대비 종합 점검단'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키로 함

군사 정보로는
중요성 없음

○ (주변국의 입장) 미국은 군사 정보로서는 그다지 중요성이 없으며, 현재로서는 북한의 남침을 우려할 만

한 특별한 변화의 징후가 없다고 평가

- 일본은 일절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
- 중국은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의심하고 있음

현재로서는
전쟁의 가능성은
희박함

○ (평가) 현재로서는 전쟁의 가능성을 너무 우려할 바
는 아니며, 크게 동요할 필요도 없음

- 황장엽은 북한의 전쟁 의지를 너무 강조하여, 의지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하고 있으며, 북한의 전쟁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도외시키고 있음
- 현재 미국, 중국, 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
- 한국, 중국, 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,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음

군사적, 경제적,
외교적으로
다차원적인 전쟁
방지 노력이
요구됨

○ (대응 방향) 그러나 전쟁은 단 1%의 가능성에 대해
서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, 항구적 평화를 위해 다음
과 같은 다차원적인 전쟁 방지 노력이 요구됨

- 첫째, 군사적 抑止(deterrence) :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 등 안보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
- 그러나 군사력만으로는 전쟁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
- 둘째, 경제적 억지 :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식량난 등 북한의 경제난에 있다면, 안보 차원에서 식량 등 일정 수준의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
- 셋째, 외교적 억지 : 남북 대화 및 북한 개방 유도, 교차 승인 유도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노력이 요구됨
-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릴수록 도발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
- 넷째,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: 4자 회담 등을 통한 남북한의 상호 준비 축소 및 신뢰 구축, 평화 협정 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임

(이 때 씬)